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ok Distributio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송 일 기(II-Gie Song)*

〈 목 차 〉

I. 서언	3.2 백제의 서적 유통양상
II. 한자문화의 수용과 식자교육의 전개	3.3 신라의 서적 유통양상
2.1 한자문화의 수용	IV. 삼국시대 서적 유통의 특징
2.2 식자교육의 전개	4.1 죽간본의 존재 가능성 검토
III. 삼국의 서적 전래와 편찬 양상	4.2 삼국 유통본의 주제별 특징
3.1 고구려의 서적 유통양상	V.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삼국이 통일을 이룬 7세기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과 내국인이 편찬하여 유통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 전모를 조사하여 주요한 특징을 밝힌 글이다. 삼국은 5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여 고대국가의 정착을 위해 법령의 제정, 교육제도의 도입, 학문의 진흥, 국제 외교, 국사의 편찬 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전래한 불교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경을 전수하는데 불과하였으나, 대장경이 도입된 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할 수준으로 교학이 발전하여 우리 자체의 장소문헌의 찬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된 7세기까지 서적의 유통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전래 서적은 주로 유교와 불교 문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내국인에 의한 자체적으로 편찬한 서적은 삼국의 역사서와 불교의 장소문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학습에 필요한 소학서와 과학 분야의 전문서적이 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삼국에서 유통된 서적의 경우 대부분 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 형태로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에서 5세기 이전에 편찬되었던 『留記』와 『書記』 등 역사서적은 죽간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키워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한자, 서적, 오경, 불경, 장소, 죽간

ABSTRACT

This study objected books having been imported from China until the 7th century when unification was made among the three kingdoms together with distributed books by Korean nationals after compiling them, and clarified main characteristics by investing their whole pictures. The three kingdoms had imported books from China from the 5th century, and made them reflect to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troduction of educational system, promotion of learning, international diplomacy, and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etc for settling down the ancient nation. And Buddhism having been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4th century was nothing more than simple handing-down Buddhist scriptures in early stage, but teaching and learning developed into levels of forming new sects after the 7th century when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was introduced, so the study paid attention to a fact that full-scale compilation of our collection literature was appearing.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phenomena of book distributions till the 7th century when the three kingdoms were unified in this way, transmitted books showed concentrating aspects to confusion and Buddhist literature mainly, and books having been compiled by Korean nationals themselves appeared high in history books of the three kingdoms and collection literatures of Buddhism, and also a fact was grasped such like Sohak books required for basic learning and professional ones on science fields were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Most books having been distributed in the three kingdoms at that time were imported from the 6th century really, so majority of them seemed to be supplied with manuscript forms. However, this study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using bamboo scriptures on history books such as *Liugi*(留記) and *Seogi*(書記) etc that had been compiled before the 5th century at the three kingdoms.

Keywords: The three kingdoms, Goguryeo, Baekje, Silla, Chinese character, Books, Five classics, Collection, Bamboo scripture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접수일: 2013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I. 서 언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적은 인류 문명의 축적된 지식을 담고 있는 매체이다. 전통시대 이러한 서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에는 인류의 지적 소산을 기술할 문자, 문자를 기록하는 방식-붓과 인쇄, 그리고 기록 내용을 담은 서사재료-죽간 또는 종이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문자는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에서 기원하여 이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된 漢字로 자국 문자가 보편적 지위를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문헌이 한자로 기록되는 이른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대에 등장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은 공히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한자의 수용은 단순히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하여 제반 문화가 함께 전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자문화의 수용은 바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의 전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신의 파견 또는 유학을 통한 인적 교류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 결국 그들도 서적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전수한 것이며, 그들이 국내에 입국 또는 귀국하면서 반입한 주요 품목 또한 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 동안 일방적 인적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6세기 이후부터 점차 쌍방적 교류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삼국은 6세기 이전의 초기에는 중국 내지의 漢代 문화에 영향을 받은 주변국으로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였으나, 이후에는 隋·唐으로부터 직접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삼국의 군주는 중국으로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여 고대 국가 형성에 필요한 통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식자층 관리를 양성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운용과 교육에 필요한 서적의 수입과 보급은 시급한 문제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적의 보급은 중국에서도 일부 귀족계층에 한정되어 유통되었을 정도로 귀중한 물품이었으므로 주변국으로 전수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당시 낙랑의 준치 지역인 평양에서 기원전 1세기에 죽간으로 만든 『논어』 실물 서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 매우 이른 시기에 서적의 전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4세기 후반까지의 사실은 여러 문헌사료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어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국에서 서적이 본격적으로 교류한 것은 문헌사료에 대체로 5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삼국이 고대 국가로 정착하는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논고에서는 우리 역사의 고대에 해당하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고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서적의 유통 양상과 주요한 특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삼국에 전래된 서적과 자체적으로 편찬한 서적을 여러 문헌사료와 선행의 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대주제로 구분하여 당시 유통된 서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과 시기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으로 한정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

세기까지를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국과 관련된 사료에 서적의 유통 과정이나 그 규모 등을 살필 만한 단서가 없어 주로 서적의 전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래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이나 교육사적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취급한 논고가 보이고 있을 뿐, 서적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대 삼국에서 서적의 수요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먼저 한자문화의 수용과 식자교육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 시기가 7세기까지의 고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유통된 서적의 형태를 살펴면서 한편으로 근래 죽간본과 관련 서사유물이 한반도에서 출토되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죽간본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필자의 소박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우리의 서적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대 부분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한자문화의 수용과 식자교육의 전개

1. 한자문화의 수용

漢字는 중국의 상대로부터 여러 차례 진화된 중국문자이다. 상고시대에는 역사지식을 점유하는 것과 그 지식을 다루는 문자를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효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문자를 장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고대의 통치술에서 예언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 되었다.²⁾ 이는 점복과 제사를 통해 축적된 문자 기록은 정치적 윤리적 행위의 준거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예측하고 연결하는 현자의 기능으로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고시대 문자를 다루던 사관은 전국시대 이후 諸子의 문인인 士人집단의 출현으로 점차 그 역할이 대체되었다. 이들 집단에 의해 편찬된 제자서는 개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단을 형성한 문인들이 장기간 축적해서 집적한 지적 결과물이다. 중국에서는 상대로부터 춘추전국시대를 통해 중국문화의 근간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한자로 기록한 고대문헌에 집적되어 있다.

이처럼 한자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중국문자로서 동일한 기능을 해왔다. 한자는 본래 중국의 상고시대 여러 단계의 문화층에서 발견된 도기부호에서 기원한다는 견해와 상대 후기 갑골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중국문자는 形音義의 구성 체계를 갖춘 은대의 갑골문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대에는 청동기에 문자를 주조하거나 새긴 금문

1) 다만 비교적 서적사적 관점에서 서술된 남풍현 교수의 논고가 보이고 있어 소개한다. 南豐鉉, “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31집(2007).

2) 張光直 著, 신화 미술 제사, 李徹 譯(서울 : 동문선, 1990), pp.134-150.

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민중이 사용한 문자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한 제의 문자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³⁾

그런데 춘추시대 이후부터 여러 나라가 독자적으로 한자를 사용하고, 전국시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행정문서에 사용되면서 점차 문자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자의 기록 또한 갑골과 청동에서 벗어나 보편적 서사재료인 죽간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한자의 자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墨子』에는 대나무와 비단에 쓰고 금석에 새기고 반우에 새겨서 후세자손에 전하여 알게 하라⁴⁾는 문자의 기능을 강조한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동시에 그 무렵 서책을 만드는데 대나무를 주요 서사재료로 사용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중국을 통일한 秦代 이후 모든 행정업무는 반드시 문서 행위로 수행하라는 규정이 반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중국에서 국가 통치 행위의 근간이 되었다.⁵⁾ 이후 한대에서는 군현지배체제가 통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고대국가로 확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서행정이 지방의 하급관리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식자 관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자 학습을 실시할 학교의 설치가 보편화되었다. 특히 漢武帝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중앙에 太學을 두고 지방에 郡國學을 설치하고 選舉制로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 운용에 활용하였다. 물론 중국에서 학교 교육은 이미 尙周 시대로부터 귀족층을 중심으로 小學과 大學의 단계로 구분하여 시작되었다.⁶⁾

한편 우리의 문자생활은 중국과는 무려 100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유입한 시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고유물과 문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그러나 고고유물은 출토지의 성격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파편에 불과하여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대부분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헌사료 중 초기의 기록인 『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중국과의 통교를 위해 ‘上書’ 즉 ‘글을 지어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는 행동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한자의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당시 문서 작성자가 중국 유민으로 제시되고 있어 본격적인 우리의 문자생활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⁸⁾

3) 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56.

4) 墨子 『兼愛』下篇, 書於竹帛 鏤於金石 琢於槃盂 傳遺後世子孫者 知之.

5) 富谷至는 秦律 〈內史雜律〉에 기록된 “보고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로 하라. 타인을 대신해서 청하지 말라”는 내용을 근거로 통치의 근간은 문서행정임을 밝히고 있다(도미야 이타루(富谷至) 原著; 임병덕 옮김,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서울: 사계절, 2005. pp.150-151).

6) 孔炳奭, “禮記를 통해본 중국고대 儒家教育制度和 教學理論,” 東洋漢文學, 제17집(1999), p.32.

7) 근래 청주박물관을 비롯하여 경주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의 고대 문자자료에 대한 전시회가 개최 되는 등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송기호에 의해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의 고대 문자생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고가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참고가 된다(宋基豪,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제5권(2002), pp.1-60).

8) 『史記』卷115, 『朝鮮列傳』第55 古朝鮮.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辰]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위 사료의 내용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의 통치 때 이미 한인유민이 많았다는 사실과 한반도 남부에 소재하는 진국이 중국에 글을 올려[上書] 중국과 통교하고자 했으나 우거왕이 이를 가로막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그 내용 중 한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上書’ 행위는 이미 이 시기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문자자료가 출현한 흔적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근래 한반도의 남부지역 창원 다호리의 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 문자생활을 암시하는 붓과 삭도 등의 書寫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⁹⁾ 이 무렵 북부지역에서도 한사군이 설치되어 낙랑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용한 문자생활 방식이 주변의 고구려 등 토착세력에 전파되고 있었다. 특히 낙랑의 문서행정에는 내지 출신 외에도 점차 현지 출신의 屬吏를 양성해서 부족한 하급 식자요원으로 활용하였다.¹⁰⁾

일반적으로 한자문화의 수용은 중국과의 朝貢과 冊封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끼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외교 과정에서 上表와 詔書의 문서행위가 수반되어 한자의 유입과 선진문화의 수용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전후의 초기 문서작성에는 한인 유민의 代作 가능성이 높아 삼국이 본격적인 문자생활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4세기 초반 낙랑이 멸망하면서 낙랑계 漢人유민이 대거 유입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¹¹⁾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부터, 그리고 신라는 6세기 무렵에 한자를 기반으로 문자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한자의 사용은 선행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국가 조직의 근간인 군현제의 실시에 따른 문서행정의 보편화와 율령계의 정착 등 고대국가의 형성에 필수적 요인이다. 따라서 한자의 수용은 단순히 한자의 습득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삼국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중국의 선진문화를 모델로 한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우리 문화 전반이 한자화로 진행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2. 식자교육의 전개

경전의 학습을 통해 형성된 識者層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나 제왕과 인민의 중간에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나 동시에 문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진대에 발생한 ‘焚書坑儒’ 사건이 바로 단적인 실례일 것이다. 이러한 식자층은 문자를 도구로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계층으로 제왕을 보좌하고 한편으로 인민을 관리해 왔다.

일찍이 중국의 상주시대는 씨족 중심의 질서체계를 토대로 구축되었으나, 전국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씨족 중심의 질서체계가 점차 동요하면서 개인은 스스로 지적 탐색을 시도하거나 이를 전수받을 수 있는 선생을 찾아 학습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몰락한 귀족과 士人 계층을 중심으로

에 한반도에서 문자를 사용하여 글을 지었다는 근거이나, 이에는 부정과 긍정의 양론이 상존하고 있다(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57.

9) 李健茂 외,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1,” 考古學誌, 제1집(1989), p.25.

10)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56-65.

11) 여호규,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96-101.

개인의 학문과 그 전수를 위해 학단이 형성되어 私學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공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가 학단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파가 등장하였다. 이른바 '諸子百家'로 알려진 일군의 학인 집단이 등장하여 새로운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초기의 식자그룹이었다. 이들은 각 학파의 선생을 중심으로 단체적으로 생활 집단을 형성하여 학습하였다.¹²⁾ 이는 당시에는 학파의 핵심사상이 담겨있는 문헌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또한 광활한 중국의 각지에서 멀리부터 학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일정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선생의 강설 내용을 집단적으로 암송하거나 문답을 기록한 자료를 모아 사후에 서적으로 편찬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상주시대 문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던 史그룹은 전국시대 이후 諸子의 문인인 士人 집단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후 한대에서 유교를 제국의 이념으로 채택한 후 행정 胥吏[百吏]와 학인관료[士大夫]로 더욱 세분되는 양상을 보이였다. 한나라는 이러한 식자집단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문서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를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행정 운용의 모델로 정착되었다.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은 다시 여러 국가로 분열된 위진남북조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이 무렵 동아시아 민족이 선진 중국을 모델로 2차로 고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한자문화와 중국식 식자교육의 도입은 필수적 과제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기원전 1세기 후반에 건국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려던 시기였다. 삼국 가운데 고구려는 그 영토가 중국과 동이 세력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화의 수용과 교류에는 유리하나 전란이 빈번하였다. 고구려의 건국 이전에 한무제 때 한반도의 북쪽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동이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한사군은 설치초기에 이미 3군이 소멸되었으나 낙랑군은 313년까지 존속하면서 선진의 한자문화를 이식하는 창구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식자층에는 중국식 성명을 가진 낙랑계 한인유민이 귀화하여 문서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식자층을 양성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귀화 낙랑계유민은 식자교육은 물론 국가 운용에 필요한 서적의 수입과 편찬, 그리고 보급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백제왕은 이들에게 假授[虛職=명예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중국과의 대외 외교에 필수적인 문서[上表]를 작성하거나 때로는 직접 사신단으로 참여시켰다. 당시 백제에서 크게 중용한 인물로 비유왕 4(450)년 백제왕이 馮野夫를 西河太守로 假授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신을 통해 중국에서 易學 서적과 점술을 수입하였다.¹³⁾ 삼국에서 초기 식자교육은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식자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후대로 평민까지 식자층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삼국은 씨족과 부족에 기반한 신분제 사회를 탈피하지 못해 조선시대와 같은 문신관료체제는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12) 李成珪, "諸子の學과 思想의 理解," 講座中國史 1, 서울 : 지식산업사, 1982, pp.162-165.

13) 『宋書』卷97, 『夷蠻列傳』第57 百濟, 元嘉二十七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 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太祖並與之.

이처럼 식자층에 대한 교육은 중국 역대에 군현제도를 운용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주변국으로 유입되었다. 우리나라는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어느 정도 정착한 1세기 후반부터 현지의 屬吏를 동원하여 충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이는 근래 기원전 45년 이전에 제작된 竹簡本 『論語』가 평양의 정백동에서 출토되었는데,¹⁵⁾ 이 자료가 비록 한나라에서 제작된 유물로 보고 있으나, 우리 강역에서 식자층의 학습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식자층에 대한 교육과 서적의 전래에는 낙랑군의 멸망과 더불어 고구려와 백제에 대거 유입된 낙랑계 유민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⁶⁾

삼국이 鼎立하던 7세기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호구 수는 대략 70만호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수준의 국가를 운용하는데 대체로 8천명 수준의 식자 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이를 근거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문서행정에 필요한 인원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식자요원을 양성하는 기간은 3년의 학습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식자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하급단계를 학습하는 고구려의 扁堂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문헌사료에는 하급 교육기관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삼국의 교육기관 설치와 교육적 활동 양상을 문헌사료에서 採記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삼국의 식자교육 활동 양상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
372년	太學設立		
450년		醫藥·卜筮·占術을 학습	
5세기	五經學習	阿直岐가 儒經學習	
6세기		倭가 五經과 易博士 등을 요청, 五經博士 段楊爾를 派遣, 梁에서 박사를 초청	
640년	三國과 高昌·吐蕃國의 子弟가 國學 입학을 요청	三國과 高昌·吐蕃國의 子弟가 國學 입학을 요청	三國과 高昌·吐蕃國의 子弟가 國學 입학을 요청
650-1년			신라의 元曉와 義湘이 進수함, 大舍 2人, 博士와 助教 둘
682년			國學을 設立하여 儒教典籍을 전문학습
7세기	扁堂설치 晝夜讀書, 入唐留學	入唐留學	學徒들이 壬申年에 詩·尙書·禮·傳의 학습을 盟誓, 強首가 孝經·曲禮·爾雅·文選을 학습, 金仁問이 儒家書와 老莊·佛書를 讀書함

14) 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p.63-65.

15)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 出土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韓國木簡學會, 2009, pp.127-166.

16)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56-65.

17) 다소 무리한 통계 숫자로 보이는데, 이 보다 7세기 이전 중국 전한시대의 인구를 대략 1220만호 6천여만명 정도로 『漢書』 『地理志』(下)에 기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필요한 관원이 12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73.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삼국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4-6세기 사이에, 그리고 신라는 7세기부터 관련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먼저 고구려와 백제에서 식자교육과 관련된 한자의 수용과 서적의 전래에 관한 사실들이 보이고 있는 것보다 무관치 않으며, 이후 복합적 한자문화가 신라에 파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한역 불경의 전래와 학습을 통해 세련된 고급 한문문화가 삼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고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군현의 행정단위를 정비하여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곧이어 이러한 국가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실시했다. 먼저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국립교육기관인 太學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쳤다.¹⁸⁾ 고구려의 태학은 중국 漢代에서 설립된 태학의 간접적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설치된 제도로 대학의 효시를 이룬 것이다. 이는 당시에 이미 유교에 의한 정치체제와 문물제도 등 통치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교재로는 『南齊書』에 5세기 무렵에 이미 중국의 유교경전인 <五經>이 들어와 독서한 내용이 보이고,¹⁹⁾ 또한 당시 고구려에 <오경>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와 제자서 등이 이미 전래되었던 사실도 중국 사서에 보이고 있는데, 당시 태학에서는 이들 서적을 교재로 학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처럼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신라의 국학에서도 유교경전과 역사서를 학습한 기록도 자주 보이고 있어 식자교육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귀족의 자제뿐만 아니라 평민의 자제에게도 교육을 시켰던 기록이 중국 사서인 『舊唐書』에 보이고 있어 유일하게 하급 교육기관의 존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衡門이나 廡養 등 하급관리 집안의 자녀까지 동리마다 큰 건물을 지어 '扃堂'이라 부르고, 주로 혼인 이전의 학동들이 이곳에서 밤낮으로 독서와 활쏘기를 연습하였다.²¹⁾ 특히 경당에서 주야로 '讀書'했다는 사실로 보아 하급관리가 되고자 하는 15세 전후의 학동에게도 『千字文』 또는 『急就章』의 문자 학습에 이어 『論語』와 『孝經』 등 기본 경서를 통해 식자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짐

18)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第6 小獸林王 2(372)年. 立太學 教育子弟.

19) 『南齊書』卷58, 『東南夷傳』第39 高句麗. 知讀五經.

20) 『周書』卷49, 『異域列傳』第41 高句麗. 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北史』卷94, 『列傳』第82 高句麗. 書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舊唐書』卷199, 『東夷列傳』第149 高句麗. 其書有五經.

21) 『舊唐書』卷199, 『東夷列傳』第149上 高句麗.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扃堂 子弟未婚之前晝夜於此讀書習射. 이 내용 뒤에는 바로 다음의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글이 보이고 있는데, 이를 경당과 관련하여 경당에서 학습한 교재의 성격으로 연관해 보는 경향도 있다(高明士 著; 吳富尹 譯. 韓國教育史研究, 서울: 大明出版社, 1995, pp.29-35). 그러나 필자는 『周書』와 『北史』에 동일한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의 전반적 서적 유통 상황을 언급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싶다. 여기에 기술된 서적은 후에 신라의 국학에서 학습했던 서적과 일치하고 있어 고구려의 태학에서도 유교경전을 기본으로 역사와 문학 서적을 학습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당에서 독서한 수준으로 보기는 곤란하다(이정빈, “고구려 扃堂의 설립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제67집(2012. 9), pp.355-362)

작해 볼 수 있겠는데, 이는 대체로 초당시기인 7세기 전반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초등 교육기관의 활동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²²⁾

그리고 백제도 일찍부터 한자를 수용하여 유교경전을 비롯해 다양한 서적들이 폭넓게 읽혀지고, 그 결과 국가의 조직과 정치적 이념에 반영되어 왔다. 이미 고이왕 2(260)년에는 육좌평을 비롯한 16관등제를 중앙에 마련하고, 웅진시대(475-538)에는 지방의 군현제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국가 조직이 정비된 4세기 후반에 백제는 사료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구려와 유사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학교를 설치하여 식자층의 교육이 시행되었으며,²³⁾ 한자문화가 성숙되어 사서 등의 편찬사업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이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五經博士 제도를 운영하여 식자교육에 관심을 둔 결과이다. 백제는 오경에 능한 사람을 박사라 불렀는데 근초고왕 30(375)년에 박사 高興이 역사서인 『書記』를 편찬했고,²⁴⁾ 5세기 초에는 王仁 박사가 일본에 『千字文』 1권과 『論語』 10권을 전해 주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²⁵⁾ 고흥과 왕인 등은 낙랑계 한인유민으로 모두 박사의 칭호를 부여받고 있어 백제에 귀화한 이후 귀족자제의 학습과 사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로 보고 있다. 백제와 활발히 교류했던 양나라(502-557)로부터 백제에 <五經>을 강독할 학자를 보내왔던 사실은 6세기 전반 무렵 백제의 오경 학습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신라는 대륙문화와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양국에 비해 국가의 체제정비가 지체되었다. 신라는 지증왕·법흥왕·진흥왕 3대를 거치면서 정치와 문화적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신라의 지증왕(500-514)은 유교의 덕치이념을 표방하는 국호와 왕호를 제정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법흥왕(514-540)은 律令을 반포하고 公服과 服色을 제정하여 국가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어 진흥왕(540-576) 때에는 王道政治를 내외에 표방하고 유교의 춘추사관에 입각한 『國史』를 편찬케 하였다. 또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넓어진 지역을 巡狩하면서 境界에 碑를 세웠는데, 비문에는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유교의 정치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시기에 설치된 화랑도는 '孝悌忠信' 표방하였고 원광의 '世俗五戒' 또한 유교의 덕

22) 그런데 이기백 선생이 扁堂의 설치시기를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관련하여 그 무렵으로 설정하였는데(李基白, “高句麗의 扁堂,”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pp.42-54),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이를 준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高明士 著; 吳富尹 譯, 韓國教育史研究, 서울: 大明出版社, 1995, pp.29-35). 그러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7세기로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宋基豪,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28; 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75), 필자 또한 기록에 보이는 『문선』을 편찬한 소명태자 蕭統이 501년에서 531년 사이에 생존하였으므로 경당이 4세기에 설치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3) 朴載福, “향교설립 이전의 유가경전 수용과 교육현황,” 東洋古典研究, 제42집(2011), pp.25-26.

24)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第2, 近肖古王 30(375)년 11월,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25) 『古事記』卷中 『應神紀』. 論語十卷 千字文一卷. 이 기록은 전래시기 및 인물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대체로 405년의 和邇로 비정하고 있으나, 근래 『천자문』을 양나라 주홍사의 편찬으로 보아 6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목을 강조하고 있어 유교사상이 신라 사회의 내면에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비록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국가정비가 많이 늦었지만 6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유교경전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라는 640년에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당나라에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하여 유학을 보냈는데, 이때 멀리 서역의 고창국과 토번국의 자제까지 입학하였다.²⁶⁾ 그 직후 신라의 金春秋는 648년에 당나라에 직접 들어가 국학에서 강론을 듣고 당 태종으로부터 직접 『晉書』를 선물로 받아 귀국하는 등 신라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대시켜 갔다.²⁷⁾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 2(682)년에는 禮部에 비로소 '國學'을 설치하였다.²⁸⁾ 이처럼 신라의 대학 설립은 고구려에 비해 매우 늦었으나, 삼국통일 이후 통치에 필요한 식자 고급관리를 시급히 양성하기 위해 당시 발달한 당나라의 교육제도를 반영하여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혜공왕이 즉위 직후 태학에 행차하여 상서를 강의했다²⁹⁾는 기록으로 보아 경덕왕 때 국학의 명칭이 太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학의 교과과정이 『三國史記』의 『職官』 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국학의 교과 내용은 오경을 중심으로 『論語』와 『孝經』을 기본적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五經·三史·諸子書에 모두 능한 사람은 등급에 따라 선발해 등용하였고, 그 밖에 算學과 醫學 등 전문교육도 병행하였다.³⁰⁾

이처럼 신라는 삼국통일 후 관할지역 넓어진 관계로 이에 대한 통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급관리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새로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이후 1세기가 지나 원성왕 4(788)년에 국학의 기능을 강화할 의도로 '讀書三品' 제도를 시행하였다.³¹⁾ 이것은 국학에서 수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다. 신라는 초기부터 골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왕과 고급 관료들은 대부분이 聖骨

26)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第5 宣德王 9(640)년 5월,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 是時 太宗大徵天下名儒爲學官 數幸國子監 使之講論 學生能明一大經已上 皆得補官 增築學舍千二百間 增學生滿三千二百六十員 於是 四方學者雲集京師 於是 高句麗百濟高昌吐蕃亦遣子弟入學.

2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第5 眞德王 2(648)년, 遣伊浪金春秋及其子文王朝 唐太宗 遣光祿卿柳亨 郊勞之 既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 并新撰晉書

28)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第8 神文王 2(682)년 6월, 立國學, 置卿一人 又置工匠府監一人 彩典監一人.

29)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第9 惠恭王 1(765)년 6월, 幸太學 命博士講尙書義

30) 『三國史記』卷38, 『職官』上, 國學屬禮部 神文王二年置 景德王改爲大學監 惠恭王復故 卿一人 景德王改爲司業 惠恭王復稱卿 位與他卿同 博士[若干人 數不定] 助教[若干人 數不定] 大舍二人 眞德王五年置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舍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史二人 惠恭王元年加二人 教授之法 以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 周易 論語 孝經 或以春秋左傳 毛詩 論語 孝經 或以尙書 論語 孝經 文選教授之 諸生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基義 兼明論語 孝經者爲上 讀曲禮 論語 孝經者爲中 讀曲禮 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 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 教授之 凡學生 位自大舍已下至無位 年自十五至三十皆充之 限九年 若朴魯不化者罷之 若才器可成而未熟者 雖踰九年許在學 位至大奈麻奈麻以後出學.

31)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第10, 元聖王 4(788)년 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아니면 眞骨 출신이었다. 이러한 골품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어 6두품 이하의 일반관료는 성골과 진골의 귀족세력 아래서 정책 자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신라의 육두품 계층은 주로 국가에 입학해서 9년동안 경전의 학습을 마치고 국가의 문헌을 편찬 또는 관리하는 중추적인 식자그룹인 학자 官僚化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중앙 실제적인 하급 행정요원은 4두품의 書吏職으로 품계는 京位 12-17등급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후에 지방으로 이주한 이들에 의해 신라의 문서행정이 촌락단위까지 확대되어 갔음을 일본 正倉院 소장의 신라 촌락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신라의 王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인 김해의 봉황동과 부천의 계양산성 유적에서 6-7세기 무렵 4면 막대기에 『論語』의 『公冶長』篇 일부가 墨書된 목재유물(3점)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³²⁾ 이 목재목서유물은 지방에서 하급관리가 되기 위해 식자 학습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여러 지방에 동일한 본문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한 '표준본보급용'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논어』를 통한 식자학습이 널리 유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삼국의 군주는 중국의 한문문화가 지배체제를 지지하는 이념과 통치기술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교의 경전과 史書를 학습함은 물론 한문학 전반에 관심을 두어 식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삼국의 식자 교육은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초기에 유교문화를 학습한 낙랑계 유민에 의해서 한자의 학습과 함께 유교경전의 수용이 동반되었다. 그들은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서적 편찬에도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에 비해 한 세기 이상 지체를 보인 신라는 일차적으로 한자문화를 학습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식자층의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대학에서 일정한 기간 학습을 받은 식자층은 고대 국가의 문서행정과 서책의 편찬에 관여하였으며,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중추적인 관리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이들 식자층은 그 기능과 수준에 따라 하급書吏와 고위官僚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갔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이들 식자층은 어떤 서적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고 학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일까. 다음 장에서 삼국시대 유통되었던 서적의 유통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2) 최근의 연구 결과가 김경호, 이영호 공편의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에 수록되어 있어 그 동안의 연구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목재유물이 단지 목간의 형태[觚]와 유사하다고 일반적으로 이를 단순히 '木簡'으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별한 목적에서 제작한 서적의 형태로 보고자 한다. 이에 별고를 준비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Ⅲ. 삼국의 서적 전래와 편찬 양상

1. 고구려의 서적 유통양상

고구려는 漢四郡이 설치된 이후 중국의 한자문화와 더불어 일찍부터 유교경전이 전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이른 시기에 한자의 학습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가 폐망한 이후에는 낙랑으로부터 유입된 遺民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문자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 낙랑의 존치지역에서 기원전 45년 이전에 한나라에서 제작된 竹簡本 『論語』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일정부분 확인해 주고 있다.³³⁾ 한편으로 4세기 후반 372년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고 아울러 불경이 수입되었으며,³⁴⁾ 7세기 무렵에는 沈叔安이 도사를 보내 老子를 강설하고³⁵⁾ 당 태종이 도사와 『道德經』을 보내와 도교를 널리 수용하고³⁶⁾ 장려하는 등 유·불·도 삼교가 병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국가의 기반이 성립된 초기부터 삼국 중 가장 먼저 유교의 학습을 통해 식자층의 기본 교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4세기 후반에는 불교와 도교가 전래되고 그 경전들이 전수되면서 한자문화는 더욱 고급화되고 삼교의 다양한 서적이 유통되었다. 다음은 한자가 수용된 이래 고구려에서 서적의 전래와 편찬에 관한 유통 사실을 사료에서 채록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고구려의 서적 전래 및 편찬 양상

시기	전래	편찬
4세기 후반	安岳 3호고분 省事圖의 執簡 모습	留記 100권 편찬
372년	前秦王의 符堅이 順道를 통해 佛經을 전래	
5세기	五經의 전래, 僧朗이 建武연간(494-497) 중국 강남에서 三論을 弘通	
600년		李文眞이 新集 5권 편찬
624년	沈叔安이 道士를 보내 老子(道德經)를 講說	
643년	唐太宗이 道士 叔達과 道德經을 보내음	
650년	普德이 涅槃經(40권)을 講說	
7세기	五經,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陽秋, 玉篇, 字統, 字林, 文選 등의 서적이 유통	

33)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 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韓國木簡學會, 2009, pp.127-166.

3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372)년 6월, 秦王符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35)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7(624)년 2월, 王遣使如唐 請班曆 遣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以天尊像及道法 往爲之講老子 王及國人聽之.

36)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2(643)년 3월,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教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教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取僧寺館之.

고구려는 3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수용하고 4세기에는 서적을 보급함에 따라 학문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정비됨에 따라 행정 운용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요구되었다. 인재 양성에는 필연적으로 교육기관의 설치가 수반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관학인 太學을 설립하였다. 본래 태학은 중국에서 한나라 무제가 박사관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던 교육기관이다. 고구려도 이러한 중국 동진의 태학 제도를 본받아서 국가를 운용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치한 것이다.

본래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강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에 필수적으로 교재와 서적의 보급이 수반된다. 비록 대학에서 사용한 교재에 대하여 우리의 문헌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측 사서인 『北史』와 『舊唐書』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독서에 필요한 서적을 중시하여 당시 유통되었던 서적에는 『詩』, 『書』, 『易』, 『禮』, 『春秋』의 <五經>과 『史記』, 『漢書』, 『後漢書』의 <三史>와 『三國志』, 『晉陽秋』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⁷⁾ 또한 『舊唐書』에는 <五經>을 기본으로 『漢書』, 『後漢書』, 『三國志』, 孫盛의 『晉春秋』, 『玉篇』, 『字林』, 『字統』 등이 이미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당나라 국학의 교재로 채택되지 않은 『文選』을 귀중하게 독서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³⁸⁾ 당시 고구려에서 유통되었던 서적은 신라의 국학에서 학습했던 서적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고구려의 대학에서도 유교경전을 기본으로 역사와 문학 서적을 학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태학의 학습서적에는 한대에 편찬된 <五經>과 『史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이하게도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편찬한 『文選』이 들어 있어 있다. 이 중 <오경>은 한 대 이후 식자교육의 기본서적으로 고급과정의 대학에서 학습했던 유교경전인데, 중국 사서에 보면 고구려에는 비교적 일찍이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또한 『文選』은 양나라 소명태자 蕭統이 당대 최고의 문장가의 글 317편을 뽑아 30권으로 편찬한 시문집인데, 고구려에서 널리 읽혀졌고 신라에서는 인재선발에도 활용되었던 서적이다.

유교의 보급이 정치에 반영된 결과로 광개토태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정치 이념과 後嗣에게 주는 顧命 등은 바로 『書經』의 堯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러 사서류에 나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서경』·『서경』·『주역』·『예기』·『춘추』 등 오경과 관계되는 사료의 편린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 또한 <오경> 이외에 三傳·三禮에 이르기까지 행위 규범·사회

37)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句麗. 書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38)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 東夷高麗. 俗愛書籍,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이 기록의 생략한 내용 중 扁堂과 관련하여 여기에 소개된 서적을 경당에서 학습한 교재로 보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7세기 초기 무렵 고구려에서 유통된 서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앞의 註釋에서 밝힌바 있다.

39) 『南齊書』 卷58, 『東南夷傳』 第39 高句麗. 知讀五經. 『周書』 卷49, 『異域列傳』 第41 高句麗. 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句麗. 書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제도·정부 조직·율령 반포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유교 경전의 학습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72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650년에 普德이 『涅槃經』을 강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⁰⁾ 그 사이 중국에서 한역된 불경을 입수하였을 것이나, 이 무렵에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중시하여 『도덕경』 등 도가류 서적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려의 역사 서적인 史書가 편찬되었다. 고구려의 사서 편찬은 한문 문장을 수준 높게 구사하는 방대한 저작과 유교 경전을 비롯한 중국 한자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편찬 연대와 찬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에 100권에 달하는 『留記』를 편찬한 바 있으며, 영양왕 11(600)년에는 대학박사 李文眞이 『留記』를 산삭해서 『新集』 5권을 撰修하였다.⁴¹⁾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보면 고구려의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五經>을 중심으로 史學, 字學, 文學 등의 학문 전반을 학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씨족 중심 신분사회로 상류의 귀족층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민간의 일반 평민은 扁堂을 세워서 학습하였다. 따라서 관학인 대학에서는 經·史·諸子百家·文章 등 상급과정의 서적을 교육하였고, 민간에 설치된 경당에서는 초급단계에서 小學書를 배우고 이어 다음 단계에서 식자요원에 적합한 『論語』와 『孝經』 등 기본적인 경서를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운용에 필요한 역사적 전거를 확보하기 위해 『留記』와 『新集』 등의 역사서적을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에서는 유교 경전과 역사 서적의 학습을 통해 지식인의 덕목을 배양하는 한편 신체의 단련과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강대한 국가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다.

2. 백제의 서적 유통양상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일찍부터 한자를 사용하여 문자생활을 하고, 또한 유교경전을 입수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였다. 백제의 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사료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미 박사의 제도, 특히 經學에 관한 박사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일찍부터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숙한 한자문화를 바탕으로 박사 고흥 등에 의해 史書가 편찬되었고, 박사제도가 설치되어 五經博士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업박사들이 여러 차례 일본에 초

40)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126-128.

41) 『三國史記』卷20『高句麗本紀』第8 嬰陽王 11(600)년 1월, 詔太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영양왕 11(600)년에 太學博士 李文眞으로 하여금 古史를 축약해서 『新集』 5권을 편찬하였는데, 고구려는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여 이 무렵 누군가 記事를 모아 『留記』 100권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刪修한 것이다. 그런데 兩書의 심각한 권수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留記』는 국초로부터 구전되어오던 신화·전설이나 왕족의 계보와 일별 記事 등을 모은 100권에 이르는 방대한 史料集으로 竹簡에 기록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종이 사용이 보편화된 고구려 영양왕 때 이르러 李文眞이 방대한 사료집 성격의 竹簡本 『留記』를 취사하여 『新集』으로 재편하고 이를 종이에 筆寫하여 분량이 5권본으로 압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빙되어 일본 상대에 한자문화를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무렵에는 유교와 더불어 불교와 도교의 경전이 전래되어 다양한 사상이 전개되었다. 다음은 삼교의 수용과 성숙한 한자문화를 바탕으로 백제에서 서적 전래와 편찬에 관한 유통 사실을 사료에서 채록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3〉 백제의 서적 전래 및 편찬 양상

시기	전래	편찬
375년	장군 莫古解가 道德經을 引用	高興이 書記를 편찬
5세기 전반	阿直岐가 일본에서 五經을 학습, 王仁(和邇吉師)이 일본에 論語(10권)과 千字文(1권)을 전래, 五經博士 段楊爾를 일본에 派遣,	百濟三書 편찬
450년	馮野夫가 易林을 구함, 당시 醫藥·卜筮·占術을 학습	
540년	涅槃經疏와 毛詩博士를 청함	
6세기	五經과 子·史部의 書籍이 보급, 성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涅槃經疏 등의 논소를 구함, 성왕 때 謙益이 律部를 인도에서 傳來.	謙益이 律典을 漢譯
7세기	무왕 때 觀勒과 義覺이 渡日하여 曆本과 般若心經 등의 서적을 전래함	義榮이 藥師本願經疏(1권), 瑜伽師地論義林(5권), 新舊諍(20권)을 撰述, 道藏이 成實論疏(16권) 撰述

이상의 사료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유학을 중심으로 문학, 의학, 역학 등을 두루 학습하였으며, 또한 불교와 도교가 전래되어 삼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적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중국에 보낸 表文의 내용은 중국과 비교할 정도로 그 문장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중국에서 백제의 임금에게 ‘王’ 또는 ‘將軍’으로 봉했던 것으로 보아 백제는 중국의 북위와 양나라 등과 관계가 밀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는 전기에는 북조의 학풍을 중시하여 국가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유가경전의 효제충신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후기에는 남조의 영향으로 불경은 물론 역학, 점술학, 문학, 의학, 약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발전을 가져왔다.

백제의 서적 유통에 대해서 국내 사료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사서에 일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국 사료에 보면 『周書』〈異域傳〉에 백제는 고구려와 흡사하게 풍속이 말 타고 활쏘기를 중히 여기고, 경전과 사서를 좋아하여 그 중 뛰어난 이는 자못 한문을 해독해서 글을 잘 지었으며,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元嘉曆을 사용하고 의약과 점술학에도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⁴²⁾ 이처럼 백제는 중국의 한자문화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이를 일본에 전파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여 동아시아 학문의 전래와 보급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사서에 근초고왕 이후 5-6세기 무렵에 阿直岐가 일본에 건너가서 유교의 경전을 가르치고,⁴³⁾ 박사 王仁은 『論語』(10권)과 『千字文』(1권)을 전해 주었다.⁴⁴⁾ 오경박사 段楊爾를

42) 『周書』卷49, 『異域列傳』第41 百濟. 俗重騎射 兼愛墳史 其秀異者 頗解屬文 又解陰陽五行 用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亦解醫藥 卜筮占相之術 有投壺·擲蒲等雜戲 然尤尚奕碁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43) 『日本書紀』卷10 譽田天皇 應神天皇. 十五(404?)年秋八月壬戌朔丁卯 百濟王遣阿直岐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奈良)坂上廐 因以阿直岐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阿直岐亦能讀經典 卽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 天皇問阿直岐

과견하여 유교경전을 왕실에서 학습을 하였다.⁴⁵⁾ 또한 무왕 때 觀勒과 義覺이 渡日하여 曆本과 『般若心經』 등의 서적을 전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오경박사와 다양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일본의 유학을 비롯한 한자문화가 발달하여 학문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백제의 비유왕이 450년에 남조의 송나라 문제에게 上表를 올려 중국계 사신인 馮野夫를 西河太守로 假授한 것을 추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易學 서적과 점술 등을 사신을 통해 입수하였다.⁴⁶⁾ 또한 『晉書』를 편찬한 蕭子雲(487-549)이 6세기 전반 東陽太守로 있을 때 백제 사신이 建業[建康, 現 南京]에 와서 書冊을 구하고 그가 써준 글씨 값으로 금화 수백만을 주고 갔다⁴⁷⁾는 내용으로 보아 백제는 사신을 통해 양나라에서 서적의 구입[求書]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적의 구입활동은 대체로 사신의 왕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려 준다. 그래서 인지 『舊唐書』(권199) 〈百濟〉조에 보면 당시 백제에는 五經을 비롯하여 子部와 史部의 서적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으며, 국가의 대외문서인 『表疏文』의 작성 수준 또한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법식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⁴⁸⁾ 또한 백제 성왕 19(54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涅槃經疏』와 毛詩博士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니 모두 보내 주었다.⁴⁹⁾ 양나라 무제는 열렬한 숭불 황제로 황실에서 많은 강론을 개최하고, 그의 태자 소명은 『금강경』을 32장으로 분장하여 독송과 이해에 편의를 주었을 정도로 학문의 덕망이 높았다. 또한 양나라 때 백제가 講禮博士를 청해오니 陸詡 박사를 보내 주었다⁵⁰⁾는 기사로 보아 당시 백제는

日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 荒田別·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岐者 阿直岐史之始祖也. 이처럼 『일본서기』에는 284년의 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학계에서는 백제 근초고왕 이후의 5세기 초(404년)의 일로 보고 있다.

- 44) 『古事記』 卷中 『應神紀』, 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人即貢進. 『日本書紀』 卷10 應神天皇, 十六(405?) 年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그런데 일본 사서에 보이는 王仁의 존재에 대해서 신화적 인물로 보고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로 보고도 있으며, 일본의 사서 『고사기』에 보이는 和邇 吉師를 동일 인물로 기록하거나 王辰爾로 비정하고 있다(이근우,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 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호, 2004). 또한 이 기록에 보이는 『천자문』이 일반적으로 양나라의 周興嗣(470?~521)가 처음으로 편찬한 초학자의 학습서라 하여 학계에서는 6세기 전반의 일로 보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어 그가 도래한 시기를 확정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정태욱, “근세의 왕인전승”, 日本學研究 제35집, 2012).
- 45) 『日本書紀』 卷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七(513)年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即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 46) 『宋書』 卷97, 『夷蠻列傳』, 第57 百濟. 元嘉二十七(450)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 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 太祖並與之.
- 47) 『南史』 卷42 『列傳』 齊高帝 諸子(上). 百濟國使人 至建業求書.
- 48) 『舊唐書』 卷199, 『東夷列傳』, 第149 百濟. 歲時伏臘 同於中國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並依中華之法. 이 사료는 서적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四部の '子·史'라는 상위 분류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부와 사부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적이 유통되고 있어 개별로 기록하지 않고 분류 단위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經史子集의 사부분류의 개념은 서진시대 3세기 후반 荀勗(?-289)이 위나라 鄭默의 제안을 수용하고 『隋書』의 『經籍志』에서 확정된 동양의 전통분류법이다(南台祐, 宋日基 共譯. 中國目錄學思想史, 대구 : 태일사, 2009, pp.72-73).
- 49) 『南史』 卷79, 『東夷列傳』, 第69 百濟. 中大通六年(534)·大同七年(541)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并工匠畫師等 並給之.
- 50) 『陳書』 卷33, 『列傳』, 第27 儒林-鄭灼. 陸詡少習崔靈恩三禮義宗 梁世百濟國 表求講禮博士 詔令詡行.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관련 박사를 초빙하여 경전의 심화 학습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백제 무왕 3(602)년 삼론종의 스님 觀勒이 渡日하여 曆本, 天文, 地理, 方術 등에 관련된 서적을 전해 주고 義覺은 『般若心經』을 독송하고 해당 章疏를 傳授하였다.⁵¹⁾ 당시 이들이 전래한 서적은 백제에서 유통되었던 유교와 불교의 경전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문자 학습서적과 경전에 주해를 가한 서적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백제에서 서적 편찬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백제의 역사를 편찬하였으며 불교가 전래된 이후 교학이 발전하면서 백제 스님에 의해 불경을 주해하여 찬술한 서적이 보이고 있다. 백제 중흥주인 근초고왕(346~375)은 박사 高興을 초빙하여 그로 하여금 國史를 편찬하게 하여 『書記』를 찬수하였다.⁵²⁾ 사료에 보이는 박사의 칭호로 보아 고흥을 한인계 유민으로 보거나 당시 백제에 고구려와 같은 대학기관이 설치되어 이곳에 오경박사를 비롯하여 천문·산술·의약 등의 전문 박사가 실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에서는 침류왕 1(384)년에 東晉으로부터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 왔다. 이때 왕이 교외까지 나가 맞이하여 궁궐 안에 머무르게 하고 佛事를 일으켜서 봉행하고, 이듬해에 漢山에 백제 최초의 절을 짓고 백제 사람을 출가시켜 득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남조와 직접 교류하면서 계율학, 삼론학, 유식학, 화엄학, 천태학을 받아 드려 수준 높은 교학의 발전을 가져 왔다.

불교문헌의 찬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백제 律宗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겸익 율사이다. 그는 백제 성왕 529년에 인도에서 梵語를 배우고 律藏 일부를 가지고 귀국하여 국내의 고승 28인과 함께 흥륜사에서 율부 72권을 한문으로 번역[漢譯]하여 율종을 형성한 인물로 추앙받았다.⁵³⁾ 만일 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면 획기적인 업적이며, 당시 계율서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세기 무렵 道藏이 『成實論疏』(16권)을 찬술한 사실이 보이고,⁵⁴⁾ 또한 義榮

51) 진단학회 편, 한국사:고대편, 서울 : 을유문화사, 1966, pp.607-612. ;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123-124.

52)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第2 近肖古王 30(375)년 11월.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이 기사는 백제의 역사서 편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書記'를 역사서 이름이 아닌 보통명사로, 즉 공식적인 문자기록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서기의 편찬이 근초고왕 때로 당시 백제는 오랫동안 樂浪郡·帶方郡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아직 문자로 사실을 기록함이 없었다"는 내용은 오히려 백제 개국과 가까운 시기부터 문자를 사용했으나 사서의 편찬이 아직 없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고흥이 편찬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무렵 고구려에서도 『留記』가 편찬된 바 있으므로 '書記'는 단순히 '문자의 기록'이 아닌 '史書의 서명'임이 분명하다.

53) 그는 인도로부터 직접 원전을 가져와 漢譯한 사실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왕은 당시 겸익 등이 한역한 新譯 律本을 台耀殿에 보관하여 장차 이를 '목판에 판각 간행[剞劂]'하여 널리 보급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彌勒佛光寺事蹟記』에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 자료는 학계에서 널리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6세기 전반 성왕 때에 '목판인쇄'가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 『藥師本願經疏』(1권), 『瑜伽師地論義林』(5권), 『新舊諍』(20권)을 찬술하였다.⁵⁵⁾ 불서 찬술과 관련하여 백제 무왕 때 삼론종의 스님 觀勒이 渡日하여 曆本, 天文, 地理, 方術 등에 관련된 서적을 전해 주고 義覺이 章疏를 傳授하였던 사실에서 당시 일부 서적에는 백제에서 편찬한 서적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상 백제에서는 일찍이 4세기부터 유학과 불교가 전래되어 한자문화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여 고흥이 史書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후 5세기에는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바탕으로 당시 백제에서 유통하는 경전과 천문 역법 등 다양한 학술과 서적을 일본에 전래하여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6세기에 남조와 교류하면서 서적의 전래는 양국 사신의 왕래를 통해 전수되거나 구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었다. 이처럼 백제는 중국의 난만한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영역에 접목하였으며, 또한 불경의 수용과 더불어 교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백제인에 의해 경전을 학습하고 이해한 사실을 저술하는 풍조가 발생하였다.

3. 신라의 서적 유통양상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서적을 수입하여 학문이 발전하였으나 신라는 이보다 지체되어 1-2세기 가량 늦은 편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太學을 건립하여 자제를 교육하였고, 백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오경박사 제도가 있어서 이들이 학술 발전과 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문화를 습득한 한인계 유민이 고구려와 백제에 들어와 선진문화를 전파하고, 신라는 이 양국을 통해 한자문화를 전수함에 따라 지식인들은 점차 한자를 사용하고 중국의 학문을 학습하였다. 이처럼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한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국과 직접 교류한 이후에는 한문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한문의 사용은 학문뿐 만 아니라 문화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또한 한문 학습을 통하여 유교와 불교 등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활동이 빈번하여 서적의 전래와 편찬이 점차 증가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8세기 전반 무렵에 목판으로 인쇄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발견되었고, 그 후 755년에 백지에 묵서 사경한 『白紙墨書華嚴寫經』이 현존하고 있다. 다음은 여러 문헌에서 실물 서적이 현전하는 7세기까지를 대상으로 신라의 서적 전래 사실과 신라인에 의해 편찬 또는 저술된 내용을 선별하여 그 유통 양상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54)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126-128.

55) 李萬, 韓國唯識思想史(서울 : 장경각, 2000), pp.51-55.

〈표 4〉 신라의 서적 전래 및 편찬 양상

시기	전래	편찬
545년		居柒夫가 國史를 편찬
565년	陳使 劉思·明觀이 佛經 1700권을 傳授	
648년	唐太宗이 帛書를 下賜	
6세기	阿道가 經律을 講讀, 安弘이 稜伽經·勝鬘經을 전래	
7세기	慈藏이 大藏經 1질을 請求해 오고 黃龍사에서 菩薩戒本을 講說함, 국학에서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論語, 孝經등을 학습, 學徒들이 壬申年에 詩·尙書·禮·傳의 학습을 盟誓, 強首가 孝經·曲禮·爾雅·文選을 학습, 金仁問이 儒家書와 老莊·佛書를 讀書함, 金后稷이 道德經을 引用, 算科에서 綴經, 三開, 九章, 六章을 학습, 醫科에서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脉經, 明堂經, 難經을 수입, 薛聰이 方言으로 九經을 해독.	智明이 四分律羯磨記를 찬술, 圓光이 如來藏經私記, 大方等如來藏經疏를 찬술, 圓勝이 梵網經記(1권), 四分律羯磨記(2권), 四分律木叉記(1권)을 찬술, 慈藏이 阿彌陀經疏, 阿彌陀經義記, 四分律羯磨私記, 十誦律木叉記, 觀行法 등을 찬술, 圓測이 解深密經疏, 成唯識論疏, 瑜伽師地論疏를 찬술, 元曉가 金鼓經義記, 瑜伽師地論疏(10권), 方便品略疏(1권), 華嚴關脈義, 普法記를 찬술, 義湘이 華嚴一乘法界圖, 入法界品抄記, 華嚴十門看法觀, 阿彌陀經義記를 찬술

위의 표와 같이 신라는 앞에서 살펴 본 고구려·백제 양국과는 달리 서적의 전래와 편찬 활동이 6세기 중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듯 신라는 처음에는 文字가 없어서 나무에 새겨 신표를 삼았으며, 언어는 백제 사람들을 통하여 의견을 소통했다고 하였다.⁵⁶⁾ 물론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신라인의 한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설립에서도 고구려는 소수림왕 2(372)년에 태학을 세운 반면, 신라에서는 300년이 늦은 삼국통일 후인 신문왕 2(682)년에 국학을 설치하였다.⁵⁷⁾ 이러한 점에서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문물제도의 정비에서 대체로 2세기 정도의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세기 전반 눌지왕 때에 박제상은 고구려와의 외교 활동에 『詩經』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지식인 사이에 유교경전을 학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와 법흥왕 7(521)년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과 복색을 규정했는데, 이때 예법과 제도에 대해서 유교경전을 반영하고 있었다. 진흥왕은 신라를 중흥시킨 임금으로 국가의 경계를 널리 확장해 서북으로는 한강하류에 이르렀고, 동북으로는 함남지방까지 진출해 강역을 확정하였다. 국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창녕 등 네 곳에 순수비를 세워 '帝王建號'의 취지를 밝히었다. 이 비문에는 『論語』〈憲問篇〉에 보이는 “제 몸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修己以安百姓)”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修己治人’이라는 유교의 근본이념을 비문에 부각시킨 것으로 당시 『논어』가 신라의 중심 사회에 유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는 비록 유교를 뒤 늦게 받아들여 사료에도 구체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대략 6세기 전반부터 〈五經〉을 수입하여 국가 운용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불교가 전래된 시기 또한 양국에 비해 1세

56) 『梁書』卷54, 『東夷列傳』第48 新羅. 無文字, 刻木爲信. 語言待百濟 而後通焉.

57)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第9 景德王 6(749)년 1월. 置國學諸業博士助教.

기 반이 늦은 법흥왕 15(528)년으로 전하고 있다. 물론 이 시기보다는 약간 이른 소지왕 때 고구려에서 아도화상이 시자들과 함께 들어와 毛禮의 집에서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불경을 강독하였다⁵⁸⁾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그 이전에도 승려의 왕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신라에서는 중국으로 求法을 떠나는 승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다양한 불교전적이 전래되었을 것이며, 그들이 귀국 후에는 직접 章疏를 찬술하는 수준으로 漢學이 성숙되었다. 진흥왕 26(565)년에 陳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을 통해 불경 1700권을 보내 왔다.⁵⁹⁾ 또한 동왕 37(576)년에 安弘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갔다 호승들과 귀국하면서 『稜伽經』과 『勝鬘經』을 가지고 왔다.⁶⁰⁾ 선덕여왕 12(643)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慈藏(590-695) 율사가 왕명으로 귀국하였는데,⁶¹⁾ 그는 7년 동안 중국의 여러 사찰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대장경 400여함을 싣고 돌아와서 통도사에 봉안하였다.⁶²⁾ 이처럼 신라는 통일 이전 불경의 수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장이 싣고 온 분량으로 보아 대장경 1절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목판인쇄가 발달하기 이전시기이므로 사본대장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불경은 물론 유교와 도교의 경전까지 전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무왕의 아우로 오랫동안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김인문(629-694)이 학동기에 유가서적을 비롯하여 불가와 도가의 서적을 많이 보았다⁶³⁾는 기록으로 보아 三敎의 다양한 서적이 이미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신라의 대문장가인 强首(?-692)도 젊은 시절 스승을 모시고 효경을 비롯하여 『曲禮』(禮記)와 『爾雅』 등 유교경전과 『문선』을 학습한 사실이 보이고,⁶⁴⁾ 그 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薛聰(655-720?)은 <九經>을 방언으로 해독하여 신라의 문자생활을 한 단계 도약시킨 인물이다.⁶⁵⁾ 이때 강수가 학습한 『爾雅』 등 새로운 경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책은 유교 경전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바른 뜻을 알려주는 사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설총이 독서한 서적에는 당나라 때 성립된 유가 경전인 <九經>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⁶⁶⁾ 이는 당시 국학에 입학한 유학생이 빈번히 교류하는 과정에서 입수해 온 것으로 보인다.

5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第4, 法興王 15(528). 十五(528)年肇行佛法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毗處(炤知)王時有 阿道(一作我道)和尚 與侍者三人 亦來毛禮家儀 表似墨胡子 住數年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

59)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第4, 眞興王 26(565)年. 陳遣使劉思與僧明觀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6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第4, 眞興王 37(576)年. 安弘法師 入隋求法 與胡僧毗摩羅等二僧廻 上稜伽·勝鬘及佛舍利.

6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第5 善德王 12(643)年 3월. 入唐求法高僧慈藏還.

62) 『三國遺事』卷3, 『興法』第3 <原宗興法 厭鬻減身>前後所將舍利. 貞觀十七(643)年 慈藏(590-658)法師載三藏四百餘函來 安于通度寺.

63) 『三國史記』卷44, 『列傳』第4 金仁問. 幼而就學 多讀儒家之書 兼涉莊老浮屠之說 又善隸書射御鄉樂 行藝純熟 識量宏弘 時人推許.

64) 『三國史記』卷46, 『列傳』第6 强首. 遂就師 讀孝經·曲禮·爾雅·文選所問 雖淺近而所得 愈高遠魁 然爲一時之傑.

65) 南豐鉉, “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31호(2007), pp.31-32.

66) 『三國史記』卷46, 『列傳』第6 薛聰(655-720?). 聰性明銳 生知道待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 宗之.

이 무렵 신라는 삼국통일 직후 신문왕 2년(682)에는 인재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國學을 설치하였다. 당시 국학의 교과 내용은 『논어』와 『효경』을 기본으로 <오경>을 중심으로 유교 교육을 실시하고 작문을 위해 『문선』까지도 학습하였으며,⁶⁷⁾ 그 밖에 별도로 算學과 醫學 등의 전업 분야도 교수하였다. 대학생이 학업을 마치면 오경·삼사·제자백가서에 모두 능통한 인재를 시험을 통해 등용하였다. 경주에서 발견된 <壬申誓記石>에는 화랑생도들도 하늘에 맹서해 『詩經』, 『尙書』, 『禮記』 등을 배우기를 결의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신라 사회에 지식인 사이에 유교의 학습이 일상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분위기로 보아 화랑들이 맹서한 임신년은 신라에 박사와 조교 등의 교육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던 651년 이후 국학이 설치된 682년 사이인 672(무열왕 12)년으로 추측된다.⁶⁸⁾ 그리고 국학에서는 전업박사를 두어 산학과 의학 등의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였는데,⁶⁹⁾ 산학과에는 산학박사와 조교를 두고 『綴經』, 『三開』, 『九章』, 『六章』 등의 산학 서적을 학습하였으며,⁷⁰⁾ 또한 효소왕 1(692)년 의학과는 박사 2인을 두고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脉經』, 『明堂經』, 『難經』 등의 의학서적을 교재로 전문적으로 교육하였다.⁷¹⁾

한편 신라는 진흥왕 6(545)년에 와서야 『國史』를 수찬하게 되었으나, 이는 백제가 근초고왕 30(375)년에 『書記』를 편찬한 것에 비해 1세기 반 이상 늦은 편이다. 사서의 편찬은 異斯夫가 왕에게 『國史』는 君臣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에 褒貶을 보이고자 함이니, 후대를 위해 사서를 편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전거를 보이겠습니까 라고 주청하니, 이에 왕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수찬하게 하였다.⁷²⁾ 이는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국사』가 편찬되었다. 이처럼 진흥왕대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한문의 해독과 저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사의 편찬과 더불어 주목할 저술 활동이 중국에 유학한 승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6세

67) 『三國史記』卷38, 『雜志』第7 職官(上) 國學, 教授之法 以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 周易 論語 孝經 或以春秋左傳 毛詩 論語 孝經 或以尙書 論語 孝經 文選教授之.

68) 이 자료는 1934년경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석장사(石丈寺)터 부근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 비문의 내용은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 七月廿二日 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과 같이 유교경전이 언급되어 주목된 자료이다. 비문에 보이는 임신년은 내용 중에 습득을 맹서한 『시경』·『상서』·『예기』 등은 신라의 국학에서 교육한 교과목으로 보아, 682(신문왕 2)년 국학이 설치된 이후의 첫 임신년인 732(성덕왕 31)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학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유교경전이 신라에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특히 비문내용 중에 忠道를 실천할 것을 맹서한 점으로 보아 화랑도가 융성했던 中古 후반의 552(진흥왕 13)년 또는 612(진평왕 34)년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국학의 기반이 형성된 가까운 시기인 672년으로 보고자 한다.

69) 吳富尹, “教育典籍을 통해 본 新羅 學校教育의 특징,” 제주한라대학논문집, 제26집(2002), pp.164-169.

70) 『三國史記』卷38, 『雜志』第7 職官(上) 國學, 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 教授之.

71) 『三國史記』卷39, 『雜志』第8 職官(中) 醫學, 孝昭王 1(692)年 初置教授學生 以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脉經·明堂經·難經爲之業 博士二人

7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第4 眞興王 6(545)년 7월, 伊滄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滄居柒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기 중반에 활약한 覺德은 양나라로 유학을 떠나 549년에 귀국하였으며, 7세기에 들어와서 陳나라에서 유학한 智明은 602년에 귀국한 이후 『四分律羯磨記』를 찬술하였고, 또한 圓光(555-638?)이 600년에 陳나라에서 귀국한 이후 『如來藏經私記』와 『大方等如來藏經疏』을 찬술하였으며, 곧이어 귀국한 圓勝이 『梵網經記』(1권), 『四分律羯磨記』(2권), 『四分律木叉記』(1권) 등을 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무렵 643년에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대장경 1질을 가지고 귀국한 慈藏(590-658)은 『阿彌陀經疏』, 『阿彌陀經義記』, 『四分律羯磨私記』(1권), 『十誦律木叉記』(1권), 『觀行法』 등을 찬술하였으며,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圓測(612-696)은 원래 23종 108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중 현존하는 저술은 『解深密經疏』, 『成唯識論疏』, 『瑜伽師地論疏』 등 3종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이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적의 전래와 편찬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라의 서적 유통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불경의 전래와 편찬에 있는데, 자장은 대장경 1부를 구입해 왔고 6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승려 智明을 비롯하여 원승·원광·자장·원측 등은 장소를 찬술하여 신라 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후 국학이 설치되어 유교경전과 역사와 문장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산학과나 의학과에서는 산학서와 의학서를 전문적으로 교수하였다.

이상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자의 수용과 더불어 식자교육에 수반하여 서적의 편찬과 유통 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삼국은 공히 중국으로부터 유교와 경전의 전래에 의해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경전의 수입과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식자층에 학문이 보급됨으로서 국가의 기본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한자와 서적을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비를 위해 법령의 제정, 교육제도의 도입, 학문의 진흥, 국제 외교, 국사 편찬 등이 확립되어 고대의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 평양의 정백동에서 죽간본 『논어』가 출토되고 남한의 김해와 부천에서 목재본 『논어』가 발굴된 사례로 보아 삼국의 초기부터 식자층 학습 교재와 서적의 전래 및 보급에 있어서 『논어』 등 유교경전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4세기 이후 한반도에 전래한 불교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경을 전수하는데 급급하였으나, 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할 수준으로 교학이 발전하여 우리 자체의 찬술 문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처럼 삼국에서 유통되었던 서적에는 중국에서 입수한 서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책봉과 관련하여 파견된 사신을 통해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대체로 삼국이 통일된 8세기 이전의 서적의 전래와 편찬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유통되었던 서적은 어떠한 형태나 특징을 지니고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당시는 아직 목판인쇄가 발명되기 이전이므로 필사본의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이다. 중국에는 필사본 또한 서사자료에 따라 죽간과 종이에 쓰여진 서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죽간본이 유통되었는지 그 출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IV. 삼국시대 서적 유통의 특징

1. 죽간본의 존재 가능성 검토

근래 북한의 평양시 낙랑유역인 정백동 364호분에서 죽간본 『論語』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에서도 죽간본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매우 획기적인 발굴로 평가되고 있다.⁷³⁾ 실로 우리나라에서 죽간본의 출현은 한국서적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전반을 새롭게 조망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백동 죽간본 『논어』는 한나라에서 기원전 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竹簡本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에 창원의 다호리 고분에서 서사에 사용되는 붓과 삭도가 발굴되고 함안산성 고분에서도 역시 붓과 삭도 발견됨으로서 한반도에서 죽간본의 출현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구려 4세기 중반에 조성된 황해도 안악 3호분의 내부에 그려져 있는 政事圖의 일부에 죽간의 형태로 보이는 장면이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례로 『삼국사기』의 기록에 고구려의 사서편찬과 관련된 기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죽간본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다.

먼저 평양시 정백동 1호분에서 발굴된 죽간본 『논어』는 비록 잔간에 불과하나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죽간본 서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죽간 자료가 대략 30만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백동 죽간본은 자체에서 편년을 확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동반 유물 가운데 기원전 45년에 작성된 목독 호구부가 들어 있어 기원전 45년 이전의 한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난 1973년에 하북성 정주시 中山懷王(劉修)의 무덤에서 죽간본 『논어』가 출토된 바 있는데, 그 제작 시기가 기원전 55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죽간본의 제작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비교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이 죽간본 『논어』가 제작되었던 시기에 한나라에서는 오경의 각 경전 마다 5명의 박사를 두고, 그 아래 학생을 昭帝 때 100명, 宣帝 때 200명, 元帝 때 1000명, 成帝 때 3000명을 각각 선발하여 교육하였다.⁷⁴⁾ 이에 앞서 한나라 무제는 태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교육하였는데, 모든 학생에게 기

73) 이 죽간본 『논어』는 이성시의 사진 입수 후 윤용구와 김경호의 의해서 처음으로 상세하게 검토되었으며(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 出土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韓國木簡學會, 2009, pp.127-166), 이후 윤용구에 의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되었다(尹龍九, “평양 출토 논어죽간의 기재방식과 異文表記,”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p.169-203). 다만 이 연구가 원자료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진자료만을 근거로 분석했다는 점과 평양본이 이와 매우 유사한 정주본의 발굴(1973년)과 관동(1981년)이 완료된 이후 1990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과목으로 효경과 『논어』를 학습케 하였다. 정주본 및 평양본 『논어』가 제작된 시기인 한나라 소제에서 원제 사이에 태학의 학생수가 무려 1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 무렵 『논어』를 비롯한 학습 서적의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반도에서 죽간본의 출현 가능성이 지난 1988년 경남 창원외의 다호리 유적 1호분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사용한 붓[筆]과 함께 削刀가 발견됨으로서 주목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자의 수용이 한반도의 북쪽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종래의 견해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붓과 삭도는 고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문자생활을 했던 서사용도의 유물이다. 죽간이나 목독시기에 붓은 필기에 쓰는 도구이며, 삭도는 필기 도중 오류부분을 깎아내어 수정하는 교정 용구이다. 또한 이곳에서 공반한 유물 가운데 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五銖錢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한이나 낙랑과의 교역 과정에서 유입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제작기법이나 재료상의 특징으로 보아 다호리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이와 관련하여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기원전 2세기 말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집단세력인 辰國에서 한나라의 천자에게 ‘上書’하여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위만조선의 右渠王이 이를 막았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 기사에 보이는 上書를 공식 외교문서인 ‘上表’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글을 올리고자 했다는 행위는 이미 이 지역에서 문자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한다.⁷⁶⁾ 그러나 이러한 문자생활이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동시대에 한나라에서 유통되었던 죽간본과 동일하게 서책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 후 이와 동일한 서사유물인 붓과 삭도가 인근에 위치한 함안의 성산산성에서도 발굴된 바 있는데, 이 서사유물은 紙書本시대인 대략 6-7세기에 문서[木牘] 작성에 한정하여 여전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호리 서사유물 보다 죽간본의 출현을 직접적으로 示唆하는 그림 자료가 보이고 있다. 이는 황해도 안악군 안악 3호분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政事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벽화는 永和 10(357)년에 제작된 것으로 벽면에 묵서되어 있으며, 그림의 중앙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좌정하고 있고 그 좌우로 정사를 보고하는 관리가 배치되어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왕 혹은 중국인 망명자인 冬壽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省事’라는 관리와 우측에는 ‘記室’이라 명기한 관리가 政事를 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중 좌측의 관리인 성사는 양손에 보고 자료를 받쳐 들고 있는데 이 자료가 바로 죽간본과 흡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보고 자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죽간 12매를 상하 2열로

74) 傅樂成 著, 中國通史, 辛勝夏 譯(서울 : 宇種社, 1976), pp.238-239.

75) 李健茂, “茶戶里遺蹟 出土 붓에 대하여,” 考古學誌, 제4집(1992), pp.5-29 참고.

76) 上書에 대해 송기호는 당시 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문자생활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록자가 막연히 쓴 단어 불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宋基豪,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6), 이성규는 주변의 낙랑계 식자층의 한인유민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李成珪, “韓國 古代 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57).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다만 이 자료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주인공의 출신 여부이며, 보고 자료가 죽간 혹은 종이에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문서인지 또는 서적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서적사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중국 망명자 冬壽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 경우 단순히 중국의 선진문화의 일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송기호의 견해처럼 ‘聖上幡’이란 명문이 보이고 있고 주인공이 白羅冠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왕(미천왕 또는 고국원왕)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4세기 중반 이전에 죽간본의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三國史記』(권20) 『高句麗本紀』(제8) 영양왕 11(600)년 정월조에 보이는 이문진의 사서 편찬과 관련한 사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4세기 후반 이전에 죽간본의 출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三國史記』의 해당 내용을 보면 “詔太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와 같다.

현재 이 사료의 가장 큰 쟁점은 ‘國初’의 시기를 과연 어느 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에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주목한 점은 史書의 분량을 나타내고 있는 ‘卷數’ 표시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國初’의 시기 문제인데, 申采浩를 비롯하여 趙仁成 등 일부 학자는 국초를 문자 그대로 고구려 건국초기와 가까운 기원전후의 시기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 李基白 등 대다수의 학자는 4세기 후반 태학을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정비한 소수림왕대(371-384년)로 비정하고 있다.⁷⁸⁾

이처럼 국초의 시기 설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사람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정작 『留記』 100卷 대 『新集』 5卷이란 물리적 권수의 심각한 偏差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留記』에는 鄒牟說話 등 신화와 전설적 내용과 왕실의 계보이외에 귀족가문의 전승 자료를 널리 채록하여 포함한 사료집 성격인데 비하여 『新集』은 오로지 왕실 중심의 역사적 사실만을 刪修하여 취합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견해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산삭 축약하였다 하더라도 100권의 분량이 불과 5권으로 압축되었다는 사실은 서사매체와 서적 裝潢의 물질적 변화의 이해 없이는 설명이 공색할 수밖에 없다.⁷⁹⁾ 더욱이 방대한 분량의 『留記』는 늦어도 4세기 후반

77) 송기호는 들고 있는 문서 위에는 검은 세로줄이 11개 정도가 그려져 있고 붉은 가로줄도 두 개가 보이는데, 세로의 검은 줄은 글씨를 표현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였다(宋基豪,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19). 그러나 필자 또한 선이 바르게 그려진 모습으로 보아 12매의 죽간을 편철한 모습으로 보이며, 붉은 두 줄은 바로 끈으로 죽간을 편철한 형상으로 종이 문서에는 끈이 표현할 필요 없는 모습으로 생각된다(高光儀,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書寫 관련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제34집(2004, 6), pp.244-246).

78) 朴成熙,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 제88집(1999), pp.26-32 참고.

79) 그리고 중국에서 기원전에 편찬된 『史記』는 전체 130篇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漢書』는 100篇을 120卷으로 編次한 사실로 보아 ‘篇’과 ‘卷’에 대한 물리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篇은 죽간본에 한정해서 사용되었으나, 卷은 죽간본을 포함하여 卷子本까지를 망라한 개념이며, 이후 線裝本으로 장정이 변화한 이후 ‘冊’

에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히려 분량이 소량인 『新集』은 이 보다 한 세기 반 후인 600년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더욱 곤란하다.⁸⁰⁾ 그리고 이문진이 새로 편찬한 '新集'이란 서명은 일반적으로 本集이나 舊集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오히려 續編이나 혹은 補編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필자는 4세기 후반 이전에 편찬된 『留記』100卷은 竹簡에 쓰여진 서적[竹書本]으로 상정해 보고 싶고, 이에 비해 600년에 편찬된 『新集』은 종이에 쓰여진 서적[紙書本]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는 이들 사서가 편찬되었을 당시 기록한 재료가 죽간에서 종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권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⁸¹⁾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사마천의 『史記』가 편찬되었을 당시 죽간본으로 130편의 방대한 분량이었겠지만 이를 지금의 DVD에 담는 다면 불과 한 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안악 3호분의 벽화그림에 보이는 省事의 보고 장면에서 4세기 중반 무렵의 죽간본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시기보다 불과 1세기 정도 앞선 3-4세기 무렵 중국의 서적에서도 서사재료에 있어서 죽간에서 종이로 큰 변화가 이행되고 있었다. 이른바 이 시기(3-4세기)는 중국에서 서적의 경우 죽간과 종이를 병용하였던 '紙竹併用期'이었다.⁸²⁾ 대체로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서적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종이로 대체되었으나, 문서의 경우는 書牘과 單獨簡을 제외한 계속적으로 누적이 필요한 파일간은 서서히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⁸³⁾ 현재 종이에 쓰여진 초기 紙書本으로는 西晉시대 초기인 3세기 후반에 종이에 필사한 『道德經』(270년)과 『諸佛要集經』(296년)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제국이 멸망하고

이란 단위개념이 등장하여 卷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흔히 선장본의 서지적 단위는 '10卷 5册'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論語』는 20卷이 아니라 본래 20篇으로 편성되었으나, 후대 종이 책이 등장하면 篇·卷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留記』가 竹書本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삼국사기』의 찬자가 '留記100卷'의 篇卷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篇을 卷으로 표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처럼 고대 서적에 보이는 단위 개념에는 竹書本에서 紙書本으로 서사재료가 변화된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80) 이에 대해 박성희는 『신집』은 『유기』 편찬 이후 추가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유기』를 축약하여 편찬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朴成熙,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 제88집(1999), pp.26-32).

81)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사용된 시기는 평양에서 발굴된 종이유물을 근거로 대략 4세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 종이에 金泥로 범화경을 쓴 사경이 평양의 대성산성에서 발굴되어 현전하고 있으나(라철화, 조선출판문화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 p.39), 이 유물을 제외하면 삼국시대 제작된 사경은 모두 목서사경이며 금자로 사경한 실물은 한 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의문이 든다(高光儀,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書寫 관련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제34집(2004. 6), pp.252-255).

82) 최근 국내에서는 1975년 안압지에서 목독(나무문서)이 발견된 이래 함안과 부여 등지의 유적에서 대략 600여매를 상회하는 자료가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날로 확산되어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한데, 대체로 국내에서 출토된 자료는 대부분 6-8세기 작성된 문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시기를 '紙木併用期'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자료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죽간은 물론 목간으로 만든 서적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로 紙書本시대로 접어 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83) 도미야 이타루(富谷至) 原著,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임병덕 옮김(서울 : 사계절, 2005), p.208, 257.

혼돈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나라가 다투어 커다란 물질문명의 변화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대략 1세기의 시차를 두고 5세기부터 紙書本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삼국 유통본의 주제별 특징

삼국은 기원전 1세기 사이에 건국한 이후 고대 국가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선진의 한자문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정착하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당시는 한자의 자형 또한 여전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판독에도 곤란을 주고 있어 한자를 학습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자의 사용은 선행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국가 조직의 근간인 군현제의 실시에 따른 문서행정의 보편화와 율령제의 정착 등 고대국가의 형성에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한자의 수용은 단순히 한자의 습득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문자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식자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서적의 전래가 빈번해졌다. 당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적은 유교의 오경뿐 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서적, 그리고 한자 학습에 필요한 소학서와 천문역학의 교육에 필수적인 서적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망라되어 있다. 또한 문자생활이 진전되고 학문이 성숙되면서 삼국 내에서 자체적인 저술과 편찬 활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삼국에 전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편찬하여 유통되었던 서적을 종교·역사·전문 주제 분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5〉 삼국시대 주제별 서적유통

구분	유교서적	불·도교서적	역사서적	전문서적
고구려	五經, 論語, 孝經	佛經, 三論書(中觀·十二門論·百論), 涅槃經, 道德經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陽秋, 留記, 新集	玉篇, 字統, 字林, 文選
백제	五經, 論語, 孝經	涅槃經疏, 律部, 藥師本願經疏, 瑜伽師地論義林, 新舊諍, 成實論疏, 道德經	史部(墳史)	千字文, 醫藥·卜筮·占術, 曆本, 天文, 地理, 方術
신라	五經, 九經, 爾雅, 論語, 孝經	佛經(1700권), 稜伽經, 勝鬘經, 大藏經(1부), 法華經, 四分律羯磨記, 如來藏經私記, 大方等如來藏經疏, 梵網經記, 四分律羯磨私記, 四分律木叉記, 阿彌陀經疏, 阿彌陀經義記, 四分律羯磨私記, 十誦律木叉記, 觀行法, 解深密經疏, 成唯識論疏, 瑜伽師地論疏, 金鼓經義記, 瑜伽師地論疏, 方便品略疏, 華嚴關脈義, 普法記, 華嚴一乘法界圖, 入法界品抄記, 華嚴十門看法觀, 阿彌陀經義記, 道德經	晉書, 國史, 史記, 漢書, 後漢書,	文選, 綴經, 三開, 九章, 六章,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

위의 표는 삼국에서 유통되었던 서적을 유불도 삼교의 종교전적과 역사서적, 그리고 전문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먼저 유교서적에 대해 살펴보면 삼국이 공통적으로 유교의 경전인 오경을 중심으로 논어와 효경이 유통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五經>은 공자에 의해서 찬수된 <六經>이 진시황의 분서를 거치면서 그 중 樂經은 전래되지 못하여 한대에 오경만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학에 오경박사 제도를 두어 전문적으로 강학한 이래 확정된 유교경전을 말한다. 그런데 신라만은 설총이 <九經>을 이두로 해독하고 『爾雅』를 학습하였던 사실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통합된 이후 전래된 서적으로 보인다. 九經은 오경 중 『詩經』, 『書經』, 『易經』에 <三禮>와 <三傳>을 포함하여 당나라 초기에 확장된 유가경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아』는 유교경전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경전의 정확한 의미[近正]를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사전으로 송대에 <十三經>의 하나로 편입된 서적이다. 이처럼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구경>과 『이아』 등의 경서를 수입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문자생활과 학문 활동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불교 전적은 유교서적과 달리 삼국에서 유통된 양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불경의 양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불경의 경우 『涅槃經』 외에 특별히 알려진 경전이 없는데 비해 신라는 經藏·律藏·論藏으로 구성된 대장경 4백함을 당나라에서 전수해 왔으며, 또한 陳나라에서 일시에 1700권을 구입해 온 사례로 보아 수량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 교학의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구려는 三論系의 서적이 주로 보이고 있으며, 백제는 成實論系와 瑜伽師地論系의 불서가 유포되었는데, 이에 비해 신라는 그 외에 唯識과 華嚴 계통의 서적과 율종과 정토 관계 불서 등이 주로 유통되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7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승려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찬술되었던 것이다. 도교경전은 노자의 『道德經』이 유일하게 삼국에 전래되었는데, 특히 고구려는 643년 당 태종이 도사를 파견하여 『도덕경』을 보내 온 이후 더욱 도교를 신봉하게 되는 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역사서적은 중국에서 전래된 史書와 삼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국사가 유통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편찬된 사서는 <三史>가 고구려와 신라에 전수되었으며, 그 외에 『三國志』, 『晉春秋』, 『晉書』 등이 유통되었다. 삼사는 전래한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기』, 『한서』, 『후한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삼국에서 유통되었던 중국의 사서류는 기전체 형식으로 편찬된 정통 사서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에서 4세기 후반에 편찬한 『留記』와 『書記』, 그리고 신라에서 6세기에 편찬된 『國史』는 현재 모두 逸失되어 그 편성체제나 수록 내용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른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여 본격적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국의 역사를 편찬하여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였던 역사의식을 지닌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문 학문에 필요한 서적이 유통되었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玉篇』과 『字

林』 등 학습에 필수적인 서적이 전래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서적은 小學類에 분류되는 서적으로 기초 한자를 학습하거나 경서의 의미를 고찰하는 학문 활동에 필수적인 서적이다. 백제에서도 일찍이 『千字文』을 일본에 전해 준 사실로 보아 한자의 기초 학습에 필요한 서적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에 고급 한문의 학습에 필요한 『文選』이 유입되어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은 특이한 사례이다. 이 책은 이후 일본에서도 등장하고 있어 서적교류사적 관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 외에 백제에서는 醫藥, 卜筮, 占術, 天文, 地理, 方術 등에 관련된 서적이 일찍부터 전래되었으나 자세한 書名은 알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신라에서는 7세기 후반에 국학을 설립하여 경학 외에 算術과 醫學 분야를 교육하였는데, 학습에 필요한 관련 서적들이 『삼국사기』에 소개되어 있다.

이상 7세기까지 삼국에서 유통되었던 서적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유교경전인 오경은 삼국에 시차를 주고 전래되어 가장 수요가 많았던 서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는데, 삼국에 전래된 경서는 당시 중국의 문헌사의 흐름으로 보아 한대에 鄭玄 등이 주석한 주해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불교전적은 양나라와 당나라에서 전수된 것으로 보아 대체로 양나라에서 515년 무렵에 僧祐(445-518)가 편찬한 『出三藏記集』에 수록된 불경 대부분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7세기 후반부터 중국 유학승과 불전의 전래가 점차 증가함에 영향을 받아 내국인이 친숙한 장소문헌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도교전적은 노자의 『도덕경』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 널리 통행된 王弼(226-249)의 주석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전문 학습 공구서인 小學書와 子部의 천문·산술과 의학·방술에 관한 과학문헌이 유통되어 학문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비록 편찬서적은 역사서적과 불교의 章疏문헌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사서의 편찬은 삼국인의 역사의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장소문헌은 우리의 한자문화가 성숙 단계로 진입한 징표이다. 이상 삼국시대 7세기까지를 대상으로 삼국의 서적문화를 살펴보았는데, 경·사·자부의 비교적 다양한 주제 분야의 서적이 유통되어 삼국의 고대국가 형성에 일정한 통치의 전거를 제공했다는 역사적 공헌을 말하고 싶다.

V. 결 언

이상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에서 8세기 이전시기에 중국에서 전래되었거나 내국인에 의해 편찬되어 유통된 서적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한자의 사용은 선행의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국가 조직의 근간인 군현제의 실시에 따른 문서행정의 보편화와 율령제의 정착 등 고대국가의 형성에 필수적 요인이다. 따라서 한자의 수용은

단순히 한자의 습득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삼국의 군주는 중국의 한자문화가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념과 통치기술을 제공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교의 경전과 史書를 학습함은 물론 한문학 전반에 관심을 두어 식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을 받은 식자층은 고대 국가의 문서행정과 서책의 편찬 을 주도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추적인 관리집단이 되었다.

셋째, 고구려의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五經>을 중심으로 史學, 字學, 文學등의 학문 전반 을 학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씨족 중심 신분사회로 상류의 귀족층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민간의 일반 평민은 扁堂을 세워서 학습하였다. 따라서 관학인 대학에서는 經·史·諸子·文章 등 상 급과정의 서적을 교육하였고, 민간에 설치된 경당에서는 초급단계에서 小學書를 배우고 이어 다음 단계에서 식자요원에 적합한 『論語』와 『孝經』 등 기본적인 경서를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의 운용에 필요한 역사적 전거를 확보하기 위해 『留記』와 『新集』 등의 역사서적을 편찬하였다.

넷째, 백제에서는 일찍이 4세기부터 유학과 불교가 전래되어 한자문화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 입하여 高興이 『書記』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후 5세기에는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바탕으로 당시 백제에서 유통되었던 경전과 천문 역법 등 다양한 학술과 서적을 일본에 전래하여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백제는 중국의 난만한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영역에 접목하였으며, 또한 불경의 전래와 더불어 교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백제인에 의해 경전을 학습하고 이해한 사실을 저술하는 풍조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적의 전래와 편찬 활동이 나타나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라의 서적 유통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장은 직접 당나라에 서 대장경 1부를 구입해 왔고 6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승려 智明을 비롯하여 圓勝·圓光·慈藏·圓測 등은 장소를 찬술하여 신라 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국통일 직후 국학이 설치되어 유교경전과 역사와 문학에 관한 서적을 체계적으로 교 육하였으며, 산학과나 의학과에서는 산학서와 의학서를 전문적으로 교수함으로써 관련 서적이 널 리 유통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평양 정백동 364호에서 발굴된 죽간본 『논어』를 비롯하여 창원 다호리와 함안 성산산성 유적에서 출토된 붓과 삭도 등 서사유물, 안악 3호분의 벽화그림에 省事가 죽간본을 들고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고구려에서 편찬한 『留記』 100권과 『新集』 5권의 심각한 권수의 차이를 죽간에서 종이로의 서사매체의 변화로 해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4세기 중반 무렵에 죽간본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도 불과 1세기 정도 앞선 3-4세기 무렵 서사재료가 죽간에 서 종이로 큰 변화가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1세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5세 기부터 紙書本이 서서히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일곱째, 7세기까지 삼국에서 유통되었던 서적의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유통 서적 중 <五經>은

삼국에 시차를 두고 전래되어 가장 수요가 많았던 서적으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당시 유통본은 한나라 鄭玄 등이 주석한 주해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전적은 양나라와 당나라에서 전수된 것으로 보아 僧祐의 『出三藏記集』에 수록된 불경 대부분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7세기 후반부터 중국 유학승과 불전의 전래가 증가함에 영향을 받아 내국인이 찬술한 장소문헌이 급속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도교전적은 노자의 『도덕경』이 유일하게 유통되었는데, 당시 중국에서 널리 통행되고 있던 王弼의 주석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전문 학습 공구서인 小學書와 子部の 천문·산술과 의학·방술에 관한 과학문헌이 유통되어 학문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편찬서적은 역사서적과 불교의 章疏문헌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사서의 편찬은 삼국인의 역사 의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九經의 해독과 章疏의 찬술은 우리의 한자문화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史記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周書

南史

北史

舊唐書

日本書紀

高光儀.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書寫 관련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제34집(2004. 6). pp.225-266.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39-84.

南豊鉉. “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31호(2007). pp.5-35.

朴載福. “향교설립 이전의 유가경전 수용과 교육현황.” 東洋古典研究, 제42집(2011), pp.7-35.

- 朴成熙.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 제88집(1999). pp.25-41.
- 富谷至 原著.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임병덕 옮김. 서울 : 사계절, 2005. pp.1-282.
- 宋基豪.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p.1-60.
- 여호규.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87-123.
- 吳富尹. “教育典籍을 통해 본 新羅 學校教育의 특징.” 제주한라대학논문집, 제26집(2002), pp.159-171.
- 李健茂. “茶戶里遺蹟 出土 甌에 대하여.” 考古學誌, 제4집(1992). pp.5-29.
- 李成珪. “韓國 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한국고대사연구, 제32집(2003. 12), pp.55-93.
- 李成珪. “諸子의 學과 思想의 理解.” 講座中國史 1, 서울 : 지식산업사, 1982. pp.157-204.
- 李成市, 尹龍九, 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 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韓國木簡學會, 2009. pp.127-16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Samguksagi

Sagi

Songseo

Namjeseo

Yangseo

Wi-Seo

Ju-seo

Nam-sa

Buk-sa

Gudangseo

Kim, Byeong-jun. “Nakrang’s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ransfiguration”, Exchange of writing systems and communication in ancient East Asia, Seoul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1. pp.39-84.

Ko, Kwang-eui. A Study on the Contents Related to Transcription Found in Murals of the Koguryo, *Journal of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Vol.34, No.2(Jun. 2004). pp.225-266.

Lee, Geonmu, “ChaJungRi Ruins have been excavated from the brush”, *Journal of*

- Archaeological Society 4(1992). pp.5-29.
- Lee, Seong-gyu,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ncient country and acceptance of Chinese character", *Korean Ancient History Research*, Vol.32, No.4(Dec. 2003), pp.55-93.
- Lee, Seong-gyu,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ideology for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 *Courses of Chinese History 1*, Seoul : Knowledge industry companies, 1982.
- Lee, Seong-si·Yoon, Yong-gu·Kim, Gyeong-ho, "Excavated from JeongBaekdong364grave in Pyongyang about a bamboo pole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wood pole and letter 4*, The Korean wood pole Society, 2009. pp.127-166.
- Lee, Sung-Kyu. The Adoption of the Chinese Writing in the Early Korean States, *Journal of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Vol.32, No.4(Dec. 2003), pp.55-93.
- Lim, Byeong-deok translation, Chinese ancient cultural history through the wooden tablets and bamboo strips, Seoul : Four Seasons, 2005, pp.1-282.
- Nam, Pung-Hyeon. A Study on the Importing and Reception of Chinese Books and Buddhist Books in Ancient Korea, *Journal of Society for Korean Bibliography*, Vol.31(2007). pp.5-35.
- Oh, Bu-yun, "Features Silla school of education through educational books." *Journal of the Jeju Halla College*, Vol.26(2002), pp.159-171.
- Park, Jae-Bok. The State of Classics Education before the establish of Hyanggyo in Korea. *Journal of Society for Eastern Classics*, Vol.42(2011). pp.7-35.
- Park, Seong-hui. "For the compilation of the histories of the ancient Three Kingdoms Review." *The Chin-Tan Society*, Vol.88(1999). pp.25-41.
- Song, Gi-ho, "Ancient characters life." *Courses Korean Ancient History*, Seoul : Development Institute of Garakguk historical site, Vol.5(2002). pp.1-60.
- Yeo, Ho-gyu, "Chinese cultural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Goguryeo." *Exchange of writing systems and communication in ancient East Asia*, Seoul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1. pp.87-123.

